

# 무엇이 너를 무겁게 하였느냐

## 경허 스님 수행 일화

### ⑧ 길을 빨리 걷게 한 희롱

만공 스님이 경허 스님을 모시고 길을 가는데 날은 저물어가고 다리는 아파왔다. 만공 스님이 시주 자루를 메고 무겁다고 끄덕대며 투덜거렸다. 만공 스님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자 경허 스님이 말했다.

“내 빨리 가는 방법을 한번 써 볼 터이니 자네 빨리 따라와 보게나.”

얼마 후 경허 스님과 만공 스님은 한 촌락에 이르렀다.

동네 사람들이 정자나무 밑에서 다들 쉬고 있었다. 한 처녀가 우물에서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가는 것이 경허 스님의 눈에 띄었다.

### 빨리 가게 해 준다며 도망치게 해

### 목숨 위협 받아 고통 잇는 도리 보여

### 타심통 부리던 만공 스님에게는

### “술법 부리면 믿지 못할 사람” 꾸중

경허 스님은 느닷없이 쫓아가 어린 개구쟁이 같이 처녀의 양쪽 귀를 잡고 입을 맞추었다. 이 광경을 본 동네 청년들이 물동이를 들고 “저 중놈 잡아라”하고 외치며 쫓아왔다.

사태가 다급해지자 경허 스님은 동네를 가로질러 뛰었다. 만공 스님은 해괴한 짓을 저지르고 바람같이 도망치는 경허 스님의 뒤를 따라, 한참동안 정신 없이 쫓아내었다. 두 스님은 ‘걸음이 날 살려라’ 하면서 산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 동네 사람 누구도 따라잡지 못하고 점차 멀어져 갔다. 한참을 뛰다보니 뒤에 따라오는 청년들이 보이지 않았다. 쫓아오는 사람이 보이지 않자 경허

스님은 뛰던 걸음을 멈추고 나무 아래에 걸터앉았다. 경허 스님이 숨을 돌리며 만공 스님에게 물었다.

“어떠냐? 지금도 무겁느냐?”

그러자 만공 스님이 대답했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허 스님이 말했다.

“옳거니, 네 말이 맞다. 무겁다는 생각이 없으니 무엇이 너를 무겁게 하였느냐”

### ⑨ 도인이라도 술법을 행하면 믿지 말라

경허 스님이 천장암(天藏庵)에 주석할 때의 일이다. 만공 스님이 공부를 하다가 식(識)이 맑아지고, 타심통(他心通)이 열려 사람의 마음과 세사일을 보지 않고도 손바닥에 놓고 보듯 환하게 아는 경계에 이르렀다.

만공 스님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순조로이 풀어주고 심지어는 죽게 되는 경지에서도 살 수 있는 지혜를 일러주었다.

경허 스님이 이러한 것을 못하게 엄금했지만 급히 달려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만공 스님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들에게 방법을 일러주고는 했다.

어느 날이었다. 경허 스님을 시봉하던 경환이라는 아이가 스님께 꾸지람을 듣고 밤중에 별안간 없어졌다. 경허 스님이 아무리 애타게 그 아이를 불러도 종적이 없었다.

경허 스님이 너무나 답답해 만공 스님에게 물었다.

“여보게 자네가 그렇게 잘 안다니 경환이란 놈이 어디로 갔는지 한번 알아보게나”하고 물었다.

만공 스님은 “지금 경환이가 있는 곳은 나무 꼭대기입니다.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 염려치 않아도 곧 들어올 것입니다”고 답했다.

경허 스님은 믿지 않았다. 스님은 “이 사람이, 이 밤중에 또 폭풍으로 바람까지 부는데 하필이면 왜 나무꼭대기에 있던 말인가? 그 참 괴이한 일이다”고 의아해 했다.

다”고 의아해 했다.

그런데 밤이 지난 아침, 지대방 안에서 경환이가 자고 나오는 게 아닌가.

경허 스님은 경환이를 불러 “어제 저녁에 어디를 갔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시봉하던 아이는 “어제 저녁에 저는 스님을 약올리기 위해 마당 끝에 있는 과목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모두들 저를 찾느라 야단이었습니다”고 말했다.

그제서야 경허 스님은 “그러나, 만공이 무엇을 알기는 잘 아는가보다”하고 생각했다.

스님은 만공 스님을 불러놓고는 “이 사람이, 서산 대사의 말씀인 즉 ‘도인에게 아무리 훌륭한 도가 있다 할지라도 술법(術法)을 행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믿지 말라’ 하지 않았는가?”고 말했다.

이에 스님은 “설사 자네가 살고 남도 살려줄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해도 그러한 일은 하지 말게”하고 엄히 타일렀다.

이에 만공 스님은 그 후로는 절대로 타심통으로 아는 말을 하지 않았다. 또 스님 스스로 어려운 곤경에 빠져도 자신의 신통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조차 품지 않았다.

구성=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그림·박구원

###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000원~~ (희담석합장주, 염주, 주머니) ⇨ **32,300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합장주 [날개] 1만원)

\* 희담석 100% 활용 방법 - 희담석(염주, 합장주 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물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물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 능인로즈마리 · 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으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로즈마리는 향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삼층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 로즈마리는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g

구입 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탄허대종사 대방광불화엄경 현토

### (80권본)

# 특별판매

현불샵 독점판매 기념 할인 이벤트 「100질 한정판」

**30만원 → 25만원** (선착순 마감)

세트 전 5권을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대방광불화엄경』은 부처와 중생은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삼고 있으며,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로 불린다. 석가세존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지 2·7일이 되던 때에 말씀하신 것을 옮긴 화엄경에는 6가지 본이 있으며, 3가지 번역이 있다.

화엄경은 당나라 중종 임금의 사성 12년부터 16년까지, 즉 서기 695년부터 366년까지 5년 동안 실차난타가 번역한 것으로 7차에서 90회에 말씀하신 것을 모아 39품 8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나라 때 번역하여 당본 ‘화엄경’이라고 하고, 80권으로 되었다고 해서 ‘80화엄’이라고도 한다.

교림출판사  
전 5권 전집 | 금장 | 최고급양장제이스 | 라이온코트지 마색 80그램 | 율케이스 | 전집2도 인쇄

현불샵 02)2004-8215

##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 (염주, 염주 주머니)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날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사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걸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등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 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물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물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 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